

인생 산 제물 (로마서 12:1-2)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다. 이 산 제물은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보통은 신자들중에서도 공휴일이 되거나 연말이 되면 가족끼리 놀러가는 사람이 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가면 안된다. 나는 한국에서는 약사였다. 일요일말고는 휴일이 없었다. 아침에 적어도 9시 이후에 문 열어야 했다. 내가 약사 할때에는 밤 10시 30분까지 문 열어야 했다. 때로는 밤에 잘 때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나가보면 가스활명수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약사이다. 그래서 약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약사는 돈을 많이 모으다는 말이 있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모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날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다. 일요일도 없게 되었다. 휴가라고 해봐야 한국의 휴가는 7월 30일에서 8월 3일 정도까지였다. 그거 말고 휴가가 없었다. 요즘은 나가 좋아서 추석이나 연휴가 길다. 그러면 그때에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교사로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평생 아이들하고 여행 한번 못가는 것이다. 가족 중심 이 사상이 많이 들어 있는 사람은 아이들하고 대화도 해야 정서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도 한다. 아이들 하고 산과 들 기본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정서가 이상해졌나? 절대 그렇게 살면 안된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미국에서는 더 그래야 한다. 개인주의 인본주의, 사단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곳이 미국이다. 본토 주민들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 전쟁해야 한다. 그 문화를 끊어야 한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결심하는 사람은 언약을 잡은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분명히 축복을 할 것이다. 원죄 이후 모든 피조물은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원죄를 이길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원죄를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원죄. 항상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원리 때문에 좋은 것도 하나 있다. 아무것도 신경 쓸거 없고 오직 언약만 성취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세상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노아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 언약이 성취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신경쓸 것도 없다. 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그냥 할수 있는데로 돕고 살리는데에만 신경쓰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내일은 성탄절이고, 오늘은 예수님오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원죄와 관련된 모든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한다. 언약을 잡고 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 성경과 같은 응답을 받는다. 성경에서 말한 응답, 성경에서 말한 전도가 일어난다. 성경의 전도자들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사단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작품이 생긴다. 몇번만 중요한 응답 받으면 인생 발판 준비된다. 언약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내용이 실질적인 발판이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언약 확인하고 각인하기 바란다. 계속 각인하면 뿌리와 체질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1. 인생 산 제물

복음을 잘 모를때에는 이 말이 저 멀리 있었다. 나의 기억에는 불가

능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저절로 일어났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왜냐면 나는 올 인도 알고 오직도 알고 있다. 완전히 다른건 아니지만 알고 있고 어느정도 상당히 체험하고 있다. 올 인이 인생 산 제물이다. 올 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가 하면 오직으로 하는 것이다. 오직이 되어야 올인이 나타난다. 올인의 사상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산 제물로 살수 있다.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릴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살아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요 행복이고 당연한 것임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마음이 바뀌면 누구든지 할수 있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본 사람은 확신도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권세이다. 이런 사람을 이길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환경도 그런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갠다. 누가 모세의 길을 막는가? 불가능이다. 누가 사도바울의 인생을 바꾸겠는가? 초대교회는 너무 언약했지만 아무도 그 방향에 손을 댄 자가 없다.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초대교회는 그냥 초대교회 그대로 살아가고 끝까지 갔다. 우리에게 이런 언약이 있고 뜻이 있으면 우리 인생도 똑같이 된다. 억지로 이런 뜻을 만들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고 언약을 잡아야 한다. 언약을 깊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바꾸는 시간표가 온다. 언약을 잡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중에 계속 들어온다. 그때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것이다. 마음이 열리고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계획없이 하시지 않는다. 모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래서 산 제물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결과이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바뀌는 영적인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이 때가 온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능히 산 제물의 삶을 산다. 인생 산 제물은 언약 산 제물이다. 산 제물, 곧 희생제사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희생제사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주셨다.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이 희생제사는 창세기 3:15절 근본 언약을 누리는 비밀이다. 인생에 계속 이 언약의 피제사를 드리면 여자의 후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 제물의 인생을 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권세가 나타난다. 틀림없다. 약속한 그대로이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할수 있다.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말씀 따라가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 노력과 결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오는 축복이다. 옛날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한번도 되어진적 없고, 그때 생각 뿐이고, 생각도 날아가버리고 잊어버렸다. 그러나 복음안에 들어와 차츰 훈련을 받아서 눈이 열려가면서 딱 들어왔다. 그래서 또 한번 우리는 언약, 복음, 이것 누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생각과 결심이 아니다. 그건 복음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다음단계 의 축복이고 결과이다. 늘 말하지만 원죄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아무도 해결 못한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답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다. 언약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

2.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그것 뿐이다. 그것 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

하다. 남은 것은 하는 것이다. 할 힘이 없으니 기도를 주셨다. 막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이 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참된 고요와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이미 답은 나와 있고, 그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 잡고 살아가야 하고 무조건 이것 잡고 발버둥 쳐야 한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다른 것 안하신다.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다른 것은 할 이유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언약만 성취되면 된다. 그러면 다른데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다른데 신경 쓰게 만든다. 속지 말라는 것이다. 안 속는 답,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안되도 계속 하는 것이다. 어느날 때가 돼서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때에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진짜 축복 있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것이 세계의 역사이다. 그 큰 세계와 언약의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도 들어 있다. 요즘은 우리가 망대여정 이정표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 망대는 언약이고 근본이다. 우리의 내용이다. 여정은 방법이고 적용할 것이다. 이정표는 방향이고 단계이다. 단계도 정해져있다. 처음부터 로마를 하는 인간은 없다. 되지도 않는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고 출발해서 미션 들어와야 한다. 그 사람은 기도 할 것이다. 미션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문 열린다. 성경의 표현이 안디옥교회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세밀하게 정리된 답이라는 것이다. 777.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과 역사로 완성하신 내용이다.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답으로 얼마나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답을 받은 자의 인생은 세상을 초월하는 인생이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정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초월이다. 정복도 못했는데, 어떻게 초월을 하는가? 세상을 초월하면 이미 그리스도 언약으로 초월한다. 인간을 초월했다. 인간을 정복했다. 그것이 초월이다. 이제 정복하고 초월했다는 것은 싸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초월해버리니까. 넘어서버린 것이다. 생각할 것도 없다. 한 개 뿐이다. 언약,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된 삶이다. 가능하다? 옛날에는 멀었다고 생각했다. 산 제물, 멀었다. 어느덧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발버둥 치는 사이에 가까워졌다. 저 멀리에 있었는데,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기겠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산 제물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데, 누가 이 사람을 이기겠는가? 못 이긴다. 누가 모세를 꺾겠는가? 광야에, 홍해에, 주위의 나라가?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조그만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다. 옛날에 위험했겠다고 생각했다. 어린아이니까. 불신앙이었다. 부모들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하냐는 생각이 들었다.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어린, 아주 힘 없는 아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를 누가 죽이는가? 가기 전에 자기가 죽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언약 잡으면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이유가 되어 버리니까. 너 왜사냐?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 전도제자,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그거 하나 뿐이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어떻게 이 생각으로 바뀌는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되냐?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답이니까. 당연히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되었었는데, 안되는 이유는 원죄였고, 그 뒤에 있는 사단 때문이다. 그런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되든 안되는 이것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 눈이 답이 되어야 한다. 근본 답이 되어야 한다. 언약만 성취

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인생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 사람은 전부 성경과 같은 응답 받는 것이다.

망대, 이정표, 여정은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그것이 777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를 구체적인 단어로 써놓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 단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준 답이다. 그리고 이 답은 완전하다. 이렇게 산 사람이 망한 경우는 없다. 반드시 정복하고 초월하고 살린다. 이런 작품인생을 사는 길은 이것 하나 뿐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 역사 통틀어 이런 삶을 사는 답은 단 한 개, 그리스도이다. 잊지 말고 누리고 승리하고 인생 정복하기 바란다.

처음에는 말씀이 오면 애매할수 있다. 분명하지 않을수 있다. 그리스도는 분명한데 구체적인 말씀이 없을수도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내가 지시할 테니, 가라고 했다. 어디를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다. 일단 일어서라는 말씀이다. 내가 차츰 보여줄테니 일어서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창12:1-3절이다. 과연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 100세에 아들을 얻었을 때 완전히 답 났다. 그 전에도 굉장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아직 자기 마음에는 아니었다. 마지막 100세에 아들을 낳은 후에 답이 나고 창세기 21장의 수양사건이후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 처음 시작은 따라오라는 것이다. 어쩌다 받은 말씀이 끝이 안 보이는 그냥 막연한 말씀일수 있다. 처음부터 확신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면 가면 보이는 것이다. 먼저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 바란다.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받는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계시다. 개인마다 다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좋은 의미에서 운명이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되는 것이다. 옆길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나간다. 반드시 계획이 성취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생 따라가는 인생이다. 어떻게 따라가는가? 말씀을 받는 것이다. 언약 근본은 나와 있다. 그것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메시지 중에서 많이 나온다. 이때 반드시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결국 지 생각대로 한다. 지 생각대로 하면 지 수준의 인생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 지식, 지 경험이다. 이래서는 절대 초월하는 인생 못 한다. 싸워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인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복 절대 안된다. 초월 더 더욱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래야 너의 인생중의 사단이 정복된다. 위하여 성령충만. 이것으로 237, 세계 복음화 하라. 이것이 답이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계속 언약을 누리면 길이 나타난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자기의 길을 바꾸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길을 바꿀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의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바꿀수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있다. 눈을 뜨기 바란다.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응답 나타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런 인생 회복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연말인데, 자녀와 가정과 건강과 경제가 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표어대로 미국, 남미, 땅끝까지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